



- 2000

하경택 | 장신대

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의 연구를 중심으로 영역별로 욕기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보여주고자 한다.¹⁾ 욕기 연구는 구약성서의 어떤 책보다도 다양한 차원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 앞서서는 이전의 욕기 연구사는 필자의 즐고²⁾와 뉴섬(C. A. Newsom)의 두 개의 논문³⁾을 통해서 조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욕기에 대한 언

* 본 논문은 2015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로서 한국구약학회 지원을 받은 연구논문임.

- 1) 본 논문은 「성서마당」 2011년 봄 호(81-97쪽)에 실린 글 “욕기 최근 연구 동향”을 기초로 그 이후의 연구사에 대한 보완과 수정을 거쳐 작성된 것이다.
- 2) 하경택, “음과 욕기의 문제: 욕기의 연구사에 관한 소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1 (2004), 47-76.
- 3) C. A. Newsom, “Considering Job,” *CRBS* (1993), 87-118; C. A. Newsom, “Re-considering Job,”

어학적-문학적 연구에서부터 시작하여 역사-비평학적 접근, 욱기의 '대화적 성격'을 해석학적 열쇠로 보는 입장들, 더 나아가 여성신학, 구조주의, 병리-심리학 등 다양한 연구방법론에 의한 연구들이 고찰될 것이다. 이뿐 아니라 욱기에 나타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 연구들과 최근에 완성된 비중 있는 주석서들이 소개되고, 또 다른 면에서 욱기의 연구동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욱기 연구 학회 논문집, 욱기의 수용사와 관련된 연구들, 그리고 국내학자들에 의해서 집필된 저서들의 순으로 욱기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언어학적-문학적 연구

욕기의 언어에 대한 연구는 그린슈타인(E. L. Greenstein)의 논문⁴⁾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욱기에 사용된 언어를 통해 욱기의 시적 기능과 의미를 파악하려고 한다. 이와는 달리 영(I. Young)은 욱기의 틀 이야기에 집중하는데, 그는 욱기의 틀 이야기에 사용된 히브리어적 특징을 살핌으로 욱기의 저작연대를 추정한다.⁵⁾ 욱기가 포로기 이전으로 소급될 수 없다는 후르비츠(Hurvitz)의 입장과는 달리 영(I. Young)은 틀 이야기 안에 포로기 이전과 이후의 히브리어 특징들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평가한다. 다음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욱기의 언어에 관한 연구는 욱기의 번역본들에 대한 연구이다. 특별히 시리아 역본인 페쉬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스텔(H. M. Szpek)은 욱기의 페쉬타에 관한 연구를 통해 번역 기술 평가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⁶⁾ 그는 4단계에 걸쳐서 페쉬타 번역의 기술을 평가하는데, 그는 먼저 페쉬타 번역의 특별

CBR (2007), 155-182.

4) E. L. Greenstein, "The Language of Job and its poetic Function," *JBL* 122/4 (2003), 651-666.

5) I. Young, "Is the Prose Tale of Job in Late Biblical Hebrew," *VT* 59 (2009), 606-629.

6) H. M. Szpek, *Translation Technique in the Peshitta to Job: A Model for Evaluating a Text with Documentation from the Peshitta to Job* (SBLDS 137), Atlanta: Scholars, 1992.

한 요소들(문법, 통사론, 의미론, 문체 등)을 파악하고 그것이 번역된 언어에 얼마나 적절한가를 검토한 다음, 번역 동기와 효과가 무엇인지 진단한다. 이러한 연구는 단순히 읍기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번역본에 대한 평가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페쉬타와 관련된 또 다른 연구로는 엘더맨(B. J. Alderman)의 논문이 있다.⁷⁾ 히브리어 본문이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을 때 다른 번역본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그는 본문 번역상의 미세한 차이가 더 큰 단위의 본문에 대한 구조와 해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특별히 포켈만(J. P. Fokkelman)의 연구는 시문학의 측면에서 읍기를 분석하였다.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읍기가 세계 문학계에서 내용적으로나 신학적으로만 심오한 수준의 작품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문학의 측면에서 볼 때도 최고의 작품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모든 행들이 완전히 통일된 예술작품의 일부로서 매우 숙고된 내용들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별히 통일성 있는 구성을 보여주는 읍-시문은 오직 '공시적'인 해석으로서만 해명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읍기의 저자가 음절의 수까지 세면서 낱말들을 정교하게 서로 연결시켰다고 평가한다. 저4자는 읍-시문을 412개의 연(strophe)과 165개의 스탠자(stanza)로 구성된 40개의 단락으로 구분한다. 저자는 책의 전반부(30-198쪽)에서 히브리어 본문과 저자의 사역을 대조시키고, 후반부(199-321쪽)에서는 읍기의 시학과 사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전개한다. 저자는 412개의 연 가운데 206개는 읍의 발언이고 206개는 세 친구들과 엘리후와 하나님의 발언에 해당된다고 분석한다. 또한 저자는 각 콜론이 평균적으로 8개의 음절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며, 따라서 각 절은 기본적으로 8+8 음절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읍-시문에서 숫

7) B. J. Alderman, "A Note on Peshitta Job 28:33," *JBL* 129/3 (2010), 449-456.

8) Jan P. Fokkelman, *The Book of Job in Form, A Literary Translation with Commentary* (Studia Semitica Neerlandica Bd. 58) (Leien/Boston, MA: Brill, 2012).

자 8이 하나의 중심적인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포켓만의 연구는 그동안 소홀이 여겨왔던 읍-시문의 시학(poetics)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킨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3. 역사-비평학적 접근

읍기에 대한 역사-비평학적인 접근은 편집비평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역사-비평적인 접근에서 말하는 읍기의 형성사는 산문으로 된 틀-이야기와 시문으로 된 읍-시문이 몇 단계의 확장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역사-비평적 연구를 진행했던 많은 학자들이 읍-시문을 여러 층들을 구분하여 각 층들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확장되고 편집되었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⁹⁾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보충과 확장의 작업이 읍-시문에 국한되지 않고 틀-이야기에서도 수행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틀-이야기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상당부분 개정의 작업을 거쳤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보여주는 것이 처음에 소개되는 두 책이며, 이 외에도 틀-이야기의 문학적 상호연관성을 고찰한 연구가 있다.

취링(W.-D. Syring)은 읍기 형성사에서 시문의 저자가 틀 이야기에 전제되어 있는 읍 전통을 문서로나 구전으로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틀 이야기와 시문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저작되었다가 후에 편집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다.¹⁰⁾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읍기 연구사를 회고한다. 역사비평 이전에는 틀 이야기와 시문이 연속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가 18세기 이후 역사비평학적 접

9) 읍기의 문헌-편집 비평적 연구에 관해서는 필자의 글, “읍과 읍기의 문제: 읍기의 연구사에 관한 소고,” 52-61쪽을 참조하라.

10) Wolf-Dieter Syring, *Hiob und Seine Anwalt. Die Prosatexte des Hiobbuches und ihre Rolle in seiner Redaktions- und Rezeptionsgeschichte* (BZAW 336) (Berlin /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4).

근을 통해 욱기의 문헌생성사만이 아니라 욱 인물의 역사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역사비평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두 부분을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아이히호른(Eichhorn)이나 드베테(de Wette) 같이 욱기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었다고 말한다. 또한 저자는 이스라엘 주변세계 문학과와의 관계를 논하면서 욱기가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주변세계의 문학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한다. 기독교와 유대교 수용사에 대한 연구에서는 신학적인 관심이 대부분 겸손하고 인내하는 욱이 나타나는 이야기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서막과 종장과 그리고 사용된 본문들을 분석한 결과 각각 세 단계로 이루어진 욱기의 생성모델을 제시한다. 그가 제시한 생성모델에서는 본문이 기초문헌과 편집자층과 개정자층의 세 가지 층으로 분류된다. 저자가 밝히는 편집사적인 구도는 문헌비평적으로 개정한 층에 기초하고 있다. 저자의 분석에서 특별히 부각되는 사람은 틀 이야기와 편집적인 본문을 통해 욱-시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부여한 편집자이다. 저자는 이 편집자를 책의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욱의 ‘대리인’(Anwalt)이라고 명명한다. 저자는 그러한 작업이 주전 3세기경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음으로 로데(M. Rohde)은 욱이 종으로 불리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여, 서막에 나오는 두 개의 천상회의 장면(욱 1:6-12; 2:1-7)과 종장의 하나님의 판결 본문(욱 42:7-9)을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¹¹⁾ 첫 번째 단계로 저자는 ‘종’ 모티브와 전통에 대한 공시적 접근을 시도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욱의 직접적인 근접성과 개인적 관계성을 나타내기 위해 ‘종’이라는 칭호만이 아니라 ‘대면’(Angesicht) 메타포가 사용되었음을 밝혀낸다. 두 번째

11) M. Rohde, *Der Knecht Hiob im Gespräch mit Mose. Eine traditions- und redaktionsgeschichtliche Studie zum Hiobbuch*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7).

단계에서는 통시적 연구를 통해 공시적으로 분석한 본문들의 편집사적 위치를 규명하는데, 저자 욥기 1장 6-12절, 22절, 2장 1-10절, 42장 7-10절 등이 공통적인 개정층에 속한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이러한 개정에 모든 재난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기대와는 달리 범죄 하지 않는 경건한 자로 욥을 특징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편집은 욥에게 종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모세의 전통이 욥 인물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탐구한다. 저자는 신명기 34장 10-12절, 18장 15-18절, 민수기 11장 24절 후반절-29절 등과 욥기 본문을 비교하는데, 이를 통해 두 인물간의 유사성을 고찰한다. 저자는 두 본문 사이에 문학적인 종속성은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두 본문에서 두 사람을 '나의 종'이라고 지칭한다거나 중보기도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대면 모티브가 부각되는 것은 두 본문이 보여주는 중요한 공통점이라고 말한다. 이뿐 아니라 두 인물이 보여주는 기능들이 제사장 전통과 예언자 전통의 측면에서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세가 다른 예언자들보다 뛰어난 인물로 평가되듯이 욥이 다른 친구들보다 우위에 있는 인물로 평가되는 것도 두 인물이 보여주는 공통점이다. 저자는 두 전통 간의 관련성 속에는 모세 전통에 대한 욥기 저자의 '사려 깊은 신학적 논평'(hintergründige theologische Kommentierung)이 담겨있다고 결론짓는다.

다음으로 헤클(Raik Heckl)은 자신의 교수자격 심사논문에서 욥기의 틀-이야기와 욥-시문의 문학적 관계들을 해명하고 더 나아가 틀-이야기의 문학적 상호관계성을 고찰하고자 한다.¹²⁾ 그는 서론적인 고찰 이후 욥-시문과 틀 이야기의 통일성과 의도와 기능을 분석하는 제2장에

12) Raik Heckl, *Hiob - vom Gottesfürchtigen zum Repräsentanten Israels, Studien zur Buchwerdung des Hiobbuches und zu seinen Quellen* (FAT 70) (Tübingen: Mohr Siebeck, 2010).

서 서막과 시문 간에 나타나는 내용적 불일치를 지적하고 두 본문 간의 내용적 그리고 의사소통적 구조와 의도를 부각시킨다. 저자는 욥-시문과 틀 이야기에 대한 통일성분석 문헌비평을 통해 시문은 틀 이야기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틀 이야기는 시문 없이 존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나서 저자는 제4장에서 욥기의 틀 이야기를 족장 이야기, 신명기, 사무엘과 열왕기서에 나타난 본문들과 비교검토를 통해 본문의 상호연관성을 고찰한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욥은 족장 이야기들보다 앞에 범례적으로 놓이게 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대표적 인물로서 기능한다. 저자는 욥기의 서막이 신명기 28장과의 논쟁에서 저주와 축복의 신명기적 설명모델에 대해 비판하며 신명기 신학에 대한 비판적 숙고를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욥-시문에 틀 이야기가 덧붙여짐으로써 욥기의 주제와 주인공의 의미가 역사신학적(geschichtstheologisch)으로 변모했으며, 이러한 욥기의 생성과정은 욥을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보여주는 대표자가 되게 한다고 평가한다. 더 나아가 저자는 무고하게 고난당한 자의 전형으로 나타난 욥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미래적인 회복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욥기의 신학은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의 신명기사가적 역사개념과 대조를 이룬다고 평가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연구는 엘리후 발언에 대한 연구이다. 탄야 필저(Tanja Pilger)는 편집사 비평의 공백을 메우는 구성적 비평을 통해 엘리후 발언을 분석하고, 욥기의 편집적 구조 안에서 엘리후 발언의 의미를 종합한다.¹³⁾ 본 연구의 구성은 엘리후 발언에 대한 분석(2장)과 엘리후 발언 구성에 대한 고찰(3장), 그리고 엘리후 발언의 신학(4장)에 대한 진술로 이어지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엘리후 발언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에서 의문시 되어 버린 하나님 상(像)을 주제로 한다. 엘리후는 고난

13) Tanja Pilger, *Erziehung im Leiden* (FAT 2, Reihe 49) (Tübingen: Mohr Siebeck, 2010).

의 원인에 대해 묻기 보다는 고난 속에서의 훈육과 해방의 관점에서 하나님 상(像)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하나님 상에 대한 변화된 관점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피조물로서 인정될 수 있고, 하나님은 각 개인의 창조주로서 자격을 얻게 된다(욥 32:8, 18, 22:33:4; 34:14f; 35:10; 36:3)고 말한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차이가 하나님의 뛰어나심과 초월 그리고 정의 안에서 현현되며(욥 33:23-30; 34:10-33; 35:1-16), 하나님은 그의 주권 가운데 인간과 구별된 정의롭고 뛰어난 통치자로서 묘사된다. 저자는 엘리후 발언이 하나님의 정의와 주권적인 창조주 되심에 대한 숙고를 통해 하나님 상(像)에 대한 신학적인 확장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4. 욥기의 '대화적 성격'을 해석학적 열쇠로 보는 입장들

욥기의 대화적 성격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욥기의 해석학적 열쇠로서 인식한다. 단순히 욥과 친구들 또는 욥과 하나님과 같은 등장인물들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욥기의 여러 부분들(예컨대, 틀-이야기와 욥-시문)이 서로 어떠한 대화적 관계에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체니(Cheney)의 연구에 이어 뉴섬(C. Newsom)의 욥기에 대한 접근은 이러한 특징을 잘 드러낸다.¹⁴⁾ 뉴섬은 욥기가 그 안에 다양한 장르와 목소리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일종의 '다성적 본문'(polyphonic text)이라고 평가한다. 예컨대, 하나님의 발언과 욥기의 종장 사이에서 발견되는 부조화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조차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려는 전략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경택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욥기를 '질문과 응답의 구조'(Frage-und-Antwort-

14) C. Newsom, "The Book of Job as Polyphonic Text," *JSTO* 97 (2002), 87-108; 동저자, *The Book of Job: A Context of Moral Imagin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Struktur) 안에서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러한 구조가 욱기의 신학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살폈다.¹⁵⁾ 그는 서막에서 천상과 지상의 장면이 서로 교차되고 있는 것에서 출발하여 욱과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대화의 측면뿐 아니라 욱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서 그러한 질문과 응답의 구조가 나타나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욱의 탄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발언들(욱 38-41장)과 종장에서 욱의 말을 ‘옳은 것’으로 판결(욱 42:7)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에서 욱기의 신학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나님의 발언에서 ‘자기(또는 인간) 중심적’(ego[anthropo]-zentrisch)이던 욱의 세계관을 바로 잡아주시면서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탄식하는 욱의 모습을 ‘긍정하는’ 하나님의 이중적인 모습에서 욱기가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슈미트(K. Schmid)는 욱기의 구성이 욱기의 신학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¹⁶⁾ 그는 서막이 본질적으로 친구들과의 대화나 하나님의 발언들이 주는 해결책들의 효과를 약화시킨다고 말한다. 이러한 구조는 욱기 안에서 자기 비판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미 제공된 모든 해결책들을 상대화시키며 어떤 특정한 시각이 독점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그 후로 이어진 연구로는 스토어달렌(T. Stordalen)의 연구가 있다. 그는 자신의 논문에서 박틴(M. Bakhtin)의 문학이론을 근거로 욱기에 나타난 ‘대화적 시문’(dialogic poetics)을 탐구하는 작업을 시도했다.¹⁷⁾

5. 다양한 연구 방법론들: 여성신학, 구조주의, 병리-심리학적 접근들

-
- 15) Kyung-Taek Ha, *Frage und Antwort. Studien zu Hiob 3 im Kontext des Hiobbuches* (HBS 46) (Freiburg u. a.: Herder Verlag, 2005).
- 16) K. Schmid, "Der Hiobprolog und das Hiobproblem," in: M. Oeming and K. Schmid (Hrsg.), *Hiobs Weg*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1), 9-34.
- 17) T. Stordalen, "Dialogue and Dialogism in the Book of Job," *JSOT* 20 (2006), 17-35.

먼저 여성신학적 접근을 살펴보자. 막달레네(F. R. Magdalene)는 여성신학과 사법적 해석의 틀을 가지고 욱의 시험에 나타난 욱의 아내의 역할을 탐구한다.¹⁸⁾ 욱의 아내는 욱에게 하나님의 법의 폭력성과 억압성에 저항하도록 촉구하는데(욱 2:9), 결국 욱은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의 폭력성에 저항하는 행동을 보인다고 평가한다. 저자에 따르면 욱의 아내는 욱기의 중심인물로서 영웅적이며 현명하다. 이뿐 아니라 욱 아내의 위상을 새롭게 보게 하는 논문이 있다. 셰퍼드(D. Shepherd)는 욱기 창세기 1-3장과 연결시켜 이해하고자 하는데, 그는 욱의 아내가 단순히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그의 공격 목표였다고 주장한다.¹⁹⁾

다음으로 구조주의적 접근이다. 욱기를 구조주의적으로 분석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 포켈만(J. P. Fokkelman)의 논문들이다.²⁰⁾ 그는 자신의 주도면밀한 분석들을 통해 욱기의 시문학이 보여주는 다양한 특징들을 잘 묘사한다. 그는 자신의 작업을 ‘운율체계’(prosody)와 ‘구조’(structure)에 한정시킨다. 하지만 가끔은 ‘의미’(meaning)와 ‘해석’(interpretation)의 영역까지 나아간다. 이 외에도 욱기에 대한 병리-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한 예들이 있다. 호근(C. Haughn)과 곤시오렉(J. C. Gonsiorek)은 욱기에 대한 병리-심리학적인 접근을 시도한다.²¹⁾ 그들은 자신들의 임상경험들을 통해 욱기에 나타난 묘사들이 자신들이 돌보던 환자들의 증상들에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8) F. R. Magdalene, "Job's Wife as Hero: a feminist-forensic Reading of the Book of Job," *Biblical Interpretation* 14/3 (2006), 209-258.

19) D. Shepherd, "'Strike his bone and his flesh': Reading Job from the Beginning," *JSOT* 33/1 (2008), 81-97.

20) J. P. Fokkelman, *Major Poems of the Hebrew Bible: At the Interface of Prosody and Structural Analysis, Vol. 2: 85 Psalms and Job 4-14* (Studia Semitica Neerlandica 41)/ *Vol. 4: Job 15-42* (Studia Semitica Neerlandica 47) (Assen: Van Gorcum, 2000/ 2004).

21) C. Haughn / J. C. Gonsiorek, "The Book of Job: Implications for construct validity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diagnostic criteria,"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12/8 [2009], 833-845.

6. 다양한 주제별 접근

욥기에 나타난 다양한 주제들을 모티브로 하여 욥기를 연구한 사례들이 많다. 쉬퍼덱커(K. Schifferdecker)는 욥기에 대한 창조신학적 접근을 시도한다.²²⁾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발언에 나타난 창조신학의 기능에 자신의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욥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하나님의 발언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와는 달리 그는 하나님의 발언이 욥의 상황에 대한 응답의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인간중심적이지 않는 창조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발언이 욥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버빈(N. Verbin)은 하나의 철학적 접근을 통해 욥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²³⁾ 그는 욥기가 욥에게 이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한 하나님의 모습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말한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욥은 용서하거나 이해를 통해 그러한 하나님과 화해한 것이 아니라 ‘손상된 친밀성’(broken intimacy)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한다고 말한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신정론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가 버렐(D. B. Burrell)과 존스(A. H. Johns)의 논문이다.²⁴⁾

이뿐 아니라 워터스(L. J. Waters)는 욥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와 ‘고난’의 주제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²⁵⁾ 해밀턴(M. Hamilton)은 욥

22) K. Schifferdecker, *Out of the Whirlwind: Creation Theology in the Book of Job* (Harvard Theological Studies 61)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23) N. Verbin, *Divinely Abused: A Philosophical Perspective on Job and His Kin* (New York: Continuum, 2010).

24) D. B. Burrell / A. H. Johns, *Deconstructing Theodicy: Why Job Has Nothing to Say to the Puzzled Suffering*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2008).

25) L. J. Waters, "Missio Dei in the Book of Job," *Bibliotheca Sacra* 166 (Jan.-Mar. 2009), 19-35; 동 저자, "Elihu's Categories of Suffering from Job 32-37," *Bibliotheca Sacra* 166 (Oct.-Dec. 2009), 405-420.

의 마지막 발언에 나타난 욱의 삶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한다.²⁶⁾ 배셋(L. Basset)은 ‘거룩한 분노’를 중심으로 야곱과 욱과 예수를 비교 연구하였다.²⁷⁾ 또한 막달레네(F. R. Magdalene)는 욱기를 사법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시도를 전개하였다.²⁸⁾ 이뿐 아니라 데일리(Th. F. Dailey)는 욱의 인물상에 집중하는데, 그는 욱이 포스트모던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전형으로서 평가된다고 말한다.²⁹⁾ 마지막으로 리데(P. Riede)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욱기에 언급되는 동물표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탐구했다.³⁰⁾

그리고 아주 최근에 출판된 두 권의 욱기 연구서가 흥미롭다. 첫 번째 책은 욱기 연구가로 널리 알려진 룩스(R. Lux)가 악의 기원의 주제를 중심으로 욱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의 대표적 저작다.³¹⁾ 룩스는 욱기의 최종 형태와 신화에 근거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욱의 삶과 하나님에게 대항하여 쏟아내는 탄식을 3부로 구성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는 1부(9-27쪽)에서 현재 독자들이 겪고 있는 삶의 경험과 성서 본문과의 관계 속에서 욱기의 의미를 고찰한다. 특별히 욱기는 ‘악의 기원은 무엇인가?’(unde malum)라는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음을 지적한다. 2부(28-271쪽)에서는 이스라엘 주변세계 문학에서뿐 아니라 욱기 자체의 본문을 따라 욱기의 내용을 요약하고 재진술한다. 3부에서는 다

26) M. Hamilton, “Elite Lives: Job 29-31 and Traditional Authority,” *JSOT* 32/1 (2007), 69-89.

27) L. Basset, *Holy Anger: Jacob, Job, Jesus* (Grand Rapids: Eerdmans, 2007).

28) F. R. Magdalene, *On the Scales of Righteousness: Neo-Babylonian Trial Law and the Book of Job* (Brown Judaic Studies 348) (Providence, RI: Brown Judaic Studies, 2007).

29) Th. F. Dailey, “The Wisdom of Irreverence. Job as an Icon for Postmodern Spirituality,” *Interpretation* 53/3 (1999), 276-289.

30) P. Riede, “‘Ein Spinnenhaus ist sein Vertrauen’ (Hi 8,14): Tiere in der Bildsprache der Hiobdialoge”, in: 동저자, *Im Spiegel der Tiere* (Fribourg: Editions Universitaires, 2002), 133-152; 동저자, “‘Ich bin ein Bruder der Schakale’ (Hi 30, 29): Tiere als Exponenten der gegenmenschlichen Welt in der Bildsprache der Hiobdialoge”, in: A. Lange u. a. (Hrsg.), *Die Dämonen - Demons* (Tübingen: Mohr Siebeck, 2003), 292-306.

31) R. Lux, Hiob, *Im Räderwerk des Bösen* (Biblische Gestalten, Bd. 25) (Leipzig: Evang. Verl.-Anstalt, 2012).

양한 영역에서 나타난 욱기의 영향사를 다룬다. 이 연구를 통해 저자는 욱이 ‘인내하면서 동시에 저항하는’ 인물이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항하여 싸우는’ 인물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자하신 하나님 께로 도피한’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저자는 야훼를 통한 욱의 회복 이 로고스(Logos)가 뭉토스(Mythos)에, 하나님의 말씀(Wort)이 하나님의 행동(Tat)에, 역사(Geschichte)가 그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항상 새로워지게 하는 창조(Schöpfung)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욱기의 중심 주제로 보고 ‘하나님의 현존’의 관점에서 욱기를 분석한 반케(R. M. Wanke)의 연구서가 있다.³²⁾ 저자는 동일한 관점으로 욱기를 보고 있는 뉘라니 쾰모스(M. Köhlmoos, *Das Auge Gottes: Textstrategie im Hiobuch*)의 연구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자신의 연구 목적이라고 밝힌다. 그는 제2장에서 질병, 죄책감, 죽음, 고난, 희망, 지혜, 윤리, 신정론 등의 주제를 다루는 포로기 이후 신학의 빛 아래에서 원자료의 편집적 증거들을 추적한다. 그는 제3장에서 엘리후 발언을 분석하고, 제4장에서 결론을 진술한다. 저자는 욱기가 3가지 편집층의 본문으로 구성된 것으로 분석한다. 첫 번째 편집층은 시문인데, 이것은 포로기 이후 초기의 본문으로서 여기에 거의 동시대의 본문인 산문 내러티브가 추가되었다고 말한다. 두 번째 편집층은 이전 시문과 산문에 대해 비평적-신학적 편집(kritisch-theologische Redaktion)이 가해진 본문으로서, 이것은 아마도 주전 3세기의 초기 헬레니즘 시대 예루살렘에 존재했던 지혜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한다. 세 번째 편집층은 엘리후 발언을 추가하고 욱기 전체를 편집했던 본문층으로서 주전 2세기의 후기 헬레니

32) R. M. Wanke, *Praesentia Dei: Die Vorstellungen von der Gegenwart Gottes im Hiobuch* (BZAW 421) (Berlin / Boston, de Gruyter, 2013).

즘 시대에 편집된 것으로 추정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욥기가 하나님의 숨어계심에 대한 고통스런 경험과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감격적인 경험 속에서 한편으로는 탄식과 고발로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로 하나님의 현존을 노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7. 최근에 출간된 주석서들

독일어권에서 대표적인 구약성서 주석은 ‘성서주석’(Biblischer Kommentar) 시리즈이다. 호르스트(F. Horst)가 완성하지 못한 주석을 2000년에 슈트라우스(H. Strauß, *Hiob. Teil 2, Hiob 19,1 – 42,17,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0*)가 완성했다.³³⁾ 이것은 독일학계의 전통적인 역사-비평학적 입장이 잘 반영된 주석이다. 다음으로 클라인즈(D. J. A. Clines)가 ‘말씀 성서 주석’(Word Biblical Commentary) 시리즈로서 욥기 42장까지의 주석을 마쳤다.³⁴⁾ 세 권으로 구성된 그의 주석은 욥기에 대한 문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해석학적으로는 독자의 역할과 의미를 강조한다. 그는 본문의 의미가 독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구체화된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주석서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스미쓰 헬위스 성서주석(Smyth and Helwys Bible Commentary)이 있다. 이 시리즈는 표준적인 범위 내에서 역사-비평적 입장들을 다룰 뿐만 아니라 해석사의 측면도 살려줄 것을 주문하였다. 예컨대, 본문에 대한 신학적 전통들이나 문학, 예술,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본문의 수용사를 다루도록 하였다. 발렌타인의 욥기 주석은 바로 이러한 기획의도를 잘 살려주고 있

33) H. Strauß, *Hiob. Teil 2, Hiob 19,1 – 42,17* (BK 16/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0).

34) D. J. A. Clines, *Job 1–20* (WBC 17), *Job 21–37* (WBC 18a), *Job 38–42* (WBC 18b) (Dallas, TX: Word Books, 1989/ Nashville: Nelson, 2006/2010).

는 주석이다.³⁵⁾ 주석의 내용을 주석(commentary)과 연결(connections)이라는 두 영역으로 나누어 편집하였고, 사이드바(sidebar)를 통하여 역사적 정보, 문학적 구조, 전문적 또는 신학적 용어와 주제에 관한 정의와 논의, 통찰력있는 인용들, 해석사에 관한 언급, 본문의 역사적 상황이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림이나 사진, 본문을 해석한 정교한 예술 작품 소개와 그것에 관한 논의 등을 풍부하게 제공하여, 독자들이 본문의 의미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독일어권과 영어권에서 출판된 다음 두 권의 주석서는 욥기의 핵심메시지를 이해하도록 본문을 간명하게 주석한 것이 특징이다. 첫 번째 주석은 카이저(Otto Kaiser)의 저작이다.³⁶⁾ 저자는 본 주석서를 통해 독일어 번역뿐만 아니라 평행본문들에 대한 목록, 사실들에 대한 해명, 문헌층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 욥기에 대한 짧은 소개 등을 제공한다. 저자는 욥기가 한 시대만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수집된 ‘무고한 자의 고난’의 주제에 관한 신학적인 편람(theologisches Kompendium)이자 지혜문학적인 통찰들의 모음집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이러한 욥기를 시편 49편이나 73편 그리고 전도서에 내재된 정신적인 태도들과 연결시킨다. 이뿐 아니라 저자는 예컨대, 일상생활에서 고찰되는 욥기 인용문들이나 괴테의 ‘파우스트’, 헨델의 ‘메시아’나 폴 게르하르트(Paul Gerhard)의 성가곡 등에 대한 사례들을 통해 욥기의 수용사적인 의미를 보여주기도 한다. 두 번째 주석은 시편 연구가로 잘 알려진 윌슨(Gerald, H. Wilson)의 저작이다.³⁷⁾ 저자는 NIBCOT 시리즈 주석이 추구하는 바와 같이 각 단락마다 짧은 설명으로 본문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지만, 수많은 불분명한 낱말들과 본문상의 난제들 때문에 해석의 곤란함을 제공하는 욥기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는 욥기가 이

35) S. E. Balentine, *Job*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Smyth & Helwys, 2006).

36) Otto Kaiser, *Das Buch Hiob. Übersetzt und eingeleitet* (Stuttgart: Radius, 2006).

37) Gerald, H. Wilson, *Job* (NIBCOT 10) (Peabody: Hendrickson, 2007).

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와 같은 자신들의 고난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을 점검하는 시험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저자에 따르면 욥기는 하나님의 정의와 관련하여 불가해한 문제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신앙인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욥기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시련의 기간 동안에도 주권적인 자유를 가진 하나님과 충실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명’(Illuminations) 주석 시리즈로서 출판된 씨아우(C. L. Seow)의 주석이다.³⁸⁾ 저자는 이 시리즈의 책임 편집자이기도 하다. 씨아우의 주석은 이 주석 시리즈의 기획 의도와 해석학적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해명’(Illuminations) 주석 시리즈는 성서본문 연구가 본래적 의미를 재구성하거나 현재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본문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본문들의 수집이고 그 역사의 모든 국면이 의미의 일부라는 인식을 분명히 한다. 본문 의미의 역사를 살피는 작업은 그것이 어떻게 명명되든³⁹⁾ 본문형성 이후 본문 해석과 영향의 과정을 본문의 의미 영역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본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이것은 저자 중심이나 본문 중심의 해석을 넘어 독자 중심의 해석에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러한 주석 시리즈의 해석학적 입장에 충실하여 저자는 서론에서 제2 성전기의 해석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유대교적 해석과 신약성서에서부터 시작하여 종교개혁시대와 계몽주의 거쳐 현대에 이르는 기독교적 해석과 코란과 현대의 무슬림이 해석하는 이슬람교적 해석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38) C. L. Seow, *Job 1–21. Interpretation and Commentary* (Illuminations) (Grand Rapids, MI / 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2013).

39) 이 작업은 학자에 따라 ‘해석사’(history of interpretation), ‘영향사’(history of effects), 혹은 ‘수용사’(history of reception)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정리하고 있다. 본문 주석에서도 그의 철두철미함이 드러나는데, 상세한 본문 분석부터 예술적이며 시적인 해석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본문 주석의 정수를 보여준다.

8. 욥기연구 학회의 논문집

욕기연구 학회의 결과를 책으로 엮어낸 논문집들을 보면 욥기 연구의 경향과 논쟁점들을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다.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발행된 네 권의 논문집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크뤼거(Th. Krüger)가 동료들과 함께 편집한 책이다.⁴⁰⁾ 이것은 2005년 스위스 몽 베리타(Monte Verità)에서 열렸던 욥기 연구 국제학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모은 논문집으로서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히브리어 본문 욥기와 헬라어 본문 욥기의 역사적 정황들’(Historische Kontexte des hebräischen und des griechischen Hiobbuchs)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델(K. Dell)의 논문은 ‘회의문학으로서의 욥기’(The Book of Job as Skeptical Literature)의 후속편이다. 그는 이 논문을 통해 욥기와 전기 헬라주의 철학 사이의 차이점들이 두 입장간의 종속성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호프만(Y. Hoffman)은 ‘시험으로서 욥기’(The Book of Job as a Trial)이라는 논문을 통해 욥기와 고대 중동 문헌들과의 비교연구를 보여준다. 그는 ‘시험’이라는 구조적 장치를 통해 전통적인 지혜문학에 도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비테(M. Witte)는 그의 논문 ‘헬라어 욥기’(The Greek Book of Job)을 통해 매우 유용한 70인경 욥기 연구를 보여준다. 뒤이어 나오는 쉘렌베르크(A. Schellenberg)의 논문(‘Hiob und Ipuwer’)은 이집트 훈계들과의 비

40) Th. Krüger u. a. (Hrsg.), *Das Buch Hiob und seine Interpretationen. Beiträge zum Hiob-Symposium auf dem Monte Verità vom 14.-19. August 2005*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2007).

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린쉬타인(E. Greenstein)은 욥-시문의 언어적 특징들을 고찰하였는데, 그는 욥기의 언어적 특징들이 성서 히브리어와 다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욥기 저자의 시적 탁월성(poetic virtuosity)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제1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월링어(Ch. Uehlinger)의 논문은 고대 중동 문헌들과의 비교를 욥기의 문학적 위치에 대한 폭넓은 시도를 보여주는데, 그는 욥기가 우르-니누르타(Ur-Ninurta)의 교훈으로 시작하여 *Juste souffrant*와 *Ludlul bel nēmeqi*를 지나 바벨론 신정론에 이르는 광범위한 통시적 연속체 가운데 마지막에 위치한다고 보여준다.

제2부는 ‘성서-문학사적 맥락 안에서의 욥기’(Das Hiobbuch in biblisch-literaturgeschichtlichem Kontext)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제2부는 성서 내적인 관계들에 집중한다. 먼저 오르쇼트(J. van Oorschot)는 욥기의 생성사(‘Die Entstehung des Hiobbuches’)를 고찰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틀-이야기의 확장과 발전에 대한 여러 입장들을 소개하고 평가한다. 예리케(D. Jericke)는 특별히 욥기 38장 16절, 24장 5절, 1절 19절 등에 등장하는 ‘광야’(midbar) 주제에 주목하는데, 그는 욥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의 하나라고 여긴다. 퍼듀(L. Perdue)는 자신의 논문(‘Creation in the Dialogues between Job and His Opponents’)을 통해 욥기를 유다의 멸망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 평가하는데, 그는 욥기에서 유다의 왕정이나 제사장직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입장에 대한 사상적 기초가 드러난다고 말한다. 크뤼거(Th. Krüger)는 ‘욥기 회개하였는가?’(Did Job Repent?) 질문하면서 욥이 회개하였다는 입장에 대하여 도전한다. 베테(J. Vette)는 욥기 3장에 나타난 자기-저주(self-curse)와 42장 6절의 철회 사이에 고찰되는 상응관계에 주목하는데, 이 상응관계가 욥-시문을 묶고 있는 내적인 틀을 형성한다고 평가한다. 슈미트(K. Schmid)는 토라와 예언서와 시편에 대한 욥기의 지시와 인용들을 분석(‘Innerbiblische Schriftdiskussion im Hiobbuch’)하면서 욥

기를 일종의 변증법적 신학으로서 평가한다. 그는 욥기가 그것들의 권위를 떠받치고 있는 ‘성서적’ 관념들을 비판한다고 말한다. 쿤츠-뤼베크(A. Kunz-Lübcke)는 욥기 31장을 이집트의 문헌과 비교(‘Hiob prozessiert mit Gott – und obsiegt – vorerst’)를 통해 평가하는데, 그는 31장에 나오는 42개의 고백이 ‘사자(死者)의 서 125’에 나오는 42개의 고백과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보이켄(W. Beuken)은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을 복구시키는데(‘Eliphaz: One among the Prophets or Ironist Spokeman?’), 그는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이 욥의 탄식에 대한 본래적인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윤리적 삶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평가한다.

제3부는 욥기의 수용사에 관한 논문들이다. 오버헨슬리-비트머(G. Oberhänsli-Widmer)는 유대교 안에서 욥의 전통들을 탐구하였고(‘Hiobtraditionen im Judentum’), 헤르처(J. Herzer)는 신약 성서 안에 나타난 욥기의 수용사(‘Jakobus, Paulus und Hiob: Die Intertextualität der Weisheit’)를 고찰하였다. 씨아우(Ch.-L. Seow)는 욥의 아내에 대한 다양한 전승들을 보여주는데(‘Job's Wife with Due Respect’), 교부들로부터 시작된 공식적인 입장들 외에도 욥의 아내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전해져 왔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뉴섬(C. Newsom)은 욥기와 드라마의 관계를 연구하면서(‘Dramaturge and the Book of Job’) 욥기가 그리스 비극에 의해서 영향을 입었다는 견해가 기록을 겪었음을 보여준다. 알데르엑(J. Anderegg, Hiob und Goethes Faust)과 보덴하이머(A. Bodenheimer, Heines Hiob)는 각각의 논문을 통해 욥기에 대한 문학적 수용의 예들을 고찰한다.

제4부는 ‘신학, 종교학, 철학, 그리고 심리학에서 중심사안으로서의 욥기 주제’(Das Hiobthema als Sachproblem in Theologie, Religionswissenschaft, Philosophie und Psychologie)라는 제목으로 욥기가 다루고 있는 주제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

다. 외밍(M. Oeming)과 드렉셀(W. Drechsel)은 목회상담학과의 관련성을 살폈고(Das Buch Hiob – Ein Lehrstück der Seelsorger?), 펠로치-올기아티(D. Pelozzi-Olgiati)는 욕기 3장과 관련된 죽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Leben und Tod, Unterwelt und Welt’), 비트너(R. Bittner)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하나님의 정의 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신정론의 문제를 다룬다(‘Hiob und Gerechtigkeit’). 이어서 호프만(Y. Hoffman)도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를 조명하였고, 마지막으로 프레펠(Ch. Frevel)은 창조신앙과 인간의 존엄성을 주제(‘Schöpfungsglaube und Menschenwürde im Hiobbuch’)로 하여 윤리적인 적용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두 번째 책은 자이들(Th. Seidl)과 에른스트(S. Ernst)가 편집한 욕기연구 논문집이다.⁴¹⁾ 이것은 2005년 올로묵(Olomouc)에서 있었던 독일어권 가톨릭 구약학자들의 연례학회(AGAT)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자이들(Th. Seidl)에 의해서 집필된 헤르더(J. G. Herder)의 욕 평가에 관한 논문이 처음에 등장한다(9-18쪽). 다음으로 제1부에서 슈빈호르스트-쾨베르거(L. Schwinhorst-Schönberger)는 역사-비평적 연구 없이 욕기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룬 후 독자중심의 접근법인 제그레고리 대제(Gregor the Great)의 해석학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한다(21-37쪽). 폴거(D. Volgger)는 회의문학이라고 규정한 델(K. J. Dell)이나 목회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외밍(M. Oeming)을 모두 비판하는데, 그 자신은 욕기에서 욕기 1장 9절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39-55쪽). 뮐러(I. Müller)는 욕기 28장이 욕기에서 중심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욕기 28장이 욕-대화나 하나님의 발언에 연결되는 점들을 평가

41) Th. Seidl und S. Ernst (Hrsg.), *Das Buch Ijob: Gesamtdeutungen-Einzeltex-te-Zentrale Themen* (Österreichische Biblische Studien, Bd. 31) (Frankfurt am Main u. a.: Peter Lang, 2007).

한다(57-83쪽). 제들마이어(F. Sedlmeier)는 ‘욥- 문제’를 메소포타미아의 논쟁문학의 맥락 안에서 고찰하면서 두 작품 간의 비교를 시도한다(85-136쪽).

제2부에서는 욥기의 ‘개별본문들’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길마이어-부허(S. Gillmayr-Bucher)는 틀이야기와 시문과의 관계를 논하면서 틀이야기를 내러티브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139-164쪽). 레헨마허(H. Rechenmacher)는 욥기 31장 35-37절의 구조와 의미에 관하여 고찰하는데, 특히 31장 35절에 나오는 ‘서명’(taw)과 ‘고발장’(sipr)의 사법적인 의미에 관하여 논한다(165-180쪽). 제3부는 ‘중심주제’라는 표제 아래 모아진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셔(G. Fischer)는 욥-대화를 치료를 위한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평가한다(183-200쪽). 미헬(A. Michel)은 ‘하나님의 폭력행동’에 관하여 탐구하고 있고(201-227쪽), 그렌저(M. Grenzer)는 욥기 24장을 시문학적인 면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 ‘사회분석’(Gesellschaftsanalyse)이라고 평가한다(229-278쪽). 끝으로 랑엔호르스트(G. Langenhorst)는 현대시와 산문에서 욥기가 어떻게 수용되고 기능하였는가의 문제를 다룬다(279-304쪽).

세 번째 책은 슈피커(Harmut Spieker)가 편집한 욥기 강연집이다.⁴²⁾ 이것은 2007년 스위스 그렌첸(Grenchen)에서 “욥 - 도피자인가 저항자인가?”(Hiob - Flüchten oder Standhalten?)란 주제로 열린 6회 강연의 원고를 책으로 묶은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강연회가 신학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구약학자(W. Dietrich)를 포함하여 정신분석가(M. Dömer, R. Funk), 독문학자(H. Herwig), 음악가(R. Lutz), 종교사회학자(F. Mennekens) 등이 참여하여 욥기 해석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준다. 욥기가 신학뿐만 아

42) Harmut Spieker (Hrsg.), *Hiob - Auseinandersetzungen mit einer biblischen Gestalt*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08).

나라 정신사와 문화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논문집이다.

네 번째 책은 교회와 유대교를 위한 연구소(Institut für Kirche und Judentum)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2010년 11월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7개의 논문을 모은 논문집이다.⁴³⁾ 첫 번째 논문의 저자인 헤르만 쉬피커만(Hermann Spieckermann)은 욕기를 상처(Wunde)와 기적(Wunder)과 지혜(Weisheit)라는 세 가지 개념 아래에서 고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는 그동안 많이 사용된 행위 회복관계(Tun-Ergehen-Zusammenhang)나 신정론(Theodizee)이라는 용어를 피하면서 신선한 접근을 시도하는데, 이를 통해 어떻게 욕기의 본문이 인식의 한계들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낸다. 두 번째 논문은 쉬피커만의 제자인 탄야 필거(Tanja Pilger)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요약인데, 그녀는 엘리후 발언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엘리후 발언에 나타난 하나님 상(像)을 연구하였다. 세 번째 논문의 저자는 마르쿠스 비테(Markus Witte)인데, 그는 욕기의 8개의 본문에 대한 후기 고대 교회 혹은 초기 중세 시대의 탈굴 연구를 통해 욕과 이스라엘 족장들과의 관계성을 고찰하였다. 그는 특별히 창세기 15장, 18장, 22장 본문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각 본문들과 두 인물에 대한 새로운 전망들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비테는 랍비 주석과 초기 기독교 주석의 상호작용에 근거해 욕이 어떻게 기독교적 수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Vater Jesu Christi)가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네 번째 논문의 저자는 프란체스카 알베르티니(Francesca Y. Albertini)인데, 그녀는 이른바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가 유대교적 수용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2011년 3월 갑작스런 그녀

43) M. Witte (Hrsg.), *Hiobs Gestalten, Interdisziplinäre Studien zum Bild Hiobs in Judentum und Christentum* (Leipzig: Evang. Verl.-Anstalt, 2012).

의 죽음으로 그녀의 발표문이 출판되지 못하고 동일한 주제로 쓴 2006 년도의 논문이 축약된 형태로 실려 있다. 다섯 번째 논문의 저자는 하 임 로즈바스키(Chaim Z. Rozwaski)인데, 그는 욥기의 수용까지 소급 되는 유대교의 애도의식과 애도자들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여섯 번째 논문의 저자는 마르틴 뷁셀(Martin Büchsel)인데, 그는 샤르트르(Charitre) 성당의 욥-솔로몬 문(Hiob-Solomon-Portal)에 대해 미술사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를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어떻게 고통하고 있는 인물 욥과 세계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가 유사 하게 나타나며, 어떻게 욥의 탄식이 수난의 고통에 대한 그리스도의 탄 식이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게오르그 랑엔호르스트(Georg Langenhorst)는 홀로코스트 이후 욥기에 대한 유대교적 수용을 연구한 논문 발표하였다. 그는 8명의 시인들의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작품들 속에 1945년 이후 욥의 인물상을 통해 집단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자신들을 해석한 내용들이 어떻게 각인되어 있는 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그는 무엇이 욥을 쇼아(Shoa)의 희생에 대한 모범자로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다룬다.

9. 욥기 수용사에 관련된 문헌들

먼저 유대교의 수용사를 다룬 문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버헨 슬리-비트머(G. Oberhänsli-Widmer)는 고대로부터 랍비시대에 이르기까지 고전적인 유대교의 욥기 수용사를 다룬다.⁴⁴⁾ 여기에 20세기 유대교적 욥기 해석에 관한 연구를 보충하고 있다. 또한 머레이 하르(M. J. Haar)는 유대교적 욥기 해석의 현대적 적용으로서 홀로코스트 경험

44) G. Oberhänsli-Widmer, *Hiob in jüdischer Antike und Moderne. Die Wirkungsgeschichte Hiobs in der jüdischen Literatur*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8).

이후 욱기가 주는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였다.⁴⁵⁾ 앞의 두 연구보다 더 전문적인 유대교적 욱기 수용사 연구가 아이젠(R. Eisen)에 의해서 진행되었다.⁴⁶⁾ 그는 특별히 중세 유대 철학에서 욱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집중한다. 그는 아직 출판되지 않은 중세시대의 욱기에 관한 주석들이 거의 80권에 이르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가 아직 시작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중세 유대 철학자들의 욱기 해석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그의 연구 대상이 된 사람은 싸디아 가온(Saadia Gaon), 마이모니데스(Maimonides), 사무엘 이븐 티본(Samuel ibn Tibbon), 체라히야 헨(Zerahiah Hen), 게르소니데스(Gersonides), 시몬 벤 체마흐 두란(Simon ben Zemaḥ Duran) 등 6명의 중세 유대 철학자들이다. 저자는 그들의 욱기 해석을 종합하면서 그들의 욱기 해석이 현대의 해석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중세 유대 철학자들도 현대의 해석자들처럼 욱기의 문학성을 높이 평가했으며, 욱기가 보상적 정의에 대한 반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자체의 급진성으로 인해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본문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그러한 중세 유대 철학자들이야말로 자기 시대의 세계관을 초월하는 문학 작품에 대한 통찰들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평가한다.

다음으로 욱기 해석에 대한 기독교적 전통들을 고찰한 연구들도 있다. 애스텔(A. Astell)⁴⁷⁾과 페레이몬드(M. Perraymond)⁴⁸⁾는 교부들의 욱기 해석을 연구하였다. 이 가운데서도 쉬라이너(S. Schreiner)의 연구는 매

45) M. J. Haar, "Job After Auschwitz," *Interpretation* 53/3 (1999), 265-275.

46) Robert Eisen, *The Book of Job in Medieval Jewish Philosophy*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47) A. Astell, *Job, Boethius, and Epic Truth*, Ithaca (NY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48) M. Perraymond, *La figura di Giobbe nella cultura paleocristiana tra esegesi patristica e manifestazioni iconografiche* (Città del Vaticano: Pontificio Istituto di Archeologia Christianna, 2002).

우 흥미롭다.⁴⁹⁾ 그는 욱기에 대한 초기 기독교와 중세 유대교 해석의 맥락 안에서 칼뱅의 주석을 고찰한다.

욕기 해석은 단순히 텍스트로만이 아니라 이미지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테리엔(S. Terrien)의 작품은 욱기의 도상학(Iconography)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연구서이다.⁵⁰⁾ 그리고 비치오와 에딘베르그(S. Vicchio and L. Edinberg)는 최근 욱기 미술의 전시품들에 대한 목록을 통해 욱기의 미술 수용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⁵¹⁾ 이뿐 아니라 욱기에 관한 문학적 수용도 주목할 만하다. 오버헨슬리-비트머의 연구(2002)에 덧붙여 보쉴레(M. Bochet)는 욱기의 문학적 수용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했다.⁵²⁾

마지막으로 쉬라더(Ulrike Schrader)가 펴낸 수용사 연구서는 특별히 계몽주의 초기 이후 독일 문학에 나타난 욱기의 수용사에 집중한다.⁵³⁾ 그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계몽주의 초기 이후 독일 문학에서 욱의 인물상(像)에 대한 수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저자에 따르면 18세기까지 욱은 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인내하는 표본적인 인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크리스티안 귄터(Christian Günther)의 서정시에서 처음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시인의 주체성에 힘입어 욱이 동일화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귄터는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한 탄식을 위해 욱이라는 인물과 그의 탄식이 주는 유용성을 인식하였다. 귄터가 새롭게 발견한 시인으로서의 욱의 인물상(像)은 하인리히 하이네

49) S. Schreiner, *Where Shall Wisdom be Found? Calvin's Exegesis of Job from Medieval and Modern Perspectiv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50) S. Terrien, *The Iconography of Job through the Centuries: Artists as Biblical Interpreters*,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6).

51) S. Vicchio and L. Edinberg, *The Sweet Uses of Adversity: Images of the Biblical Job*, Annapolis (MD: St Johns College, 2002).

52) M. Bochet, *Job après Job: destinée littéraire d'une figure biblique* (Bruxelles: Lessius, 2000).

53) Ulrike Schrader, *Die Gestalt Hiobs in der deutschen Literatur seit der frühen Aufklärung* (Europäische Hochschulschriften) (Frankfurt a. M. u. a.: Peter Lang, 1992).

(Heinrich Heine)의 글과 이반 골(Yvan Goll)의 시에서 다시금 나타난다. 그들은 옴과 함께 자신들의 질병과 가난의 경험을 표현했으며 옴의 삶을 비참함이 드러나는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연결하였다. 저자는 1945년 이후에는 독일 문학에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옴기를 국가사회주의 치하의 고난이나 홀로코스트를 위한 암호(Chiffre)로서 이해하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특별히 포로로부터 풀려난 유대 시인들은 성서의 내용이 유대 민족의 생존능력을 증명하려는 전통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또한 리스본(Lissabon)의 대지진 경험과는 달리 홀로코스트 경험하고 나서는 자신들의 경험에 대한 마땅한 이론제시가 힘든 상황에서 옴의 탄식들은 자신과 하나님 이해에 대한 적절한 비판으로서 수용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옴기는 괴테(Goethe)의 파우스트에서처럼 문학작품의 내용과 구조를 위해 차용되기도 하고, 레오폴드 폰 자허-마조흐(Leopold von Sacher-Masoch)나 에크하르트 크로네베르그(Eckhart Kroneberg)의 소설에서처럼 사회비판의 목적을 위한 예증 인물로서 형상화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독일문학에서 옴기의 수용은 무고한 자의 고난이나 하나님의 멀리계심, 존재의 부조리 등과 같은 주제만의 수용으로 축소될 수 없고 문제제기나 서술방식에서도 드러나는데, 20세기 독일문학에 옴기의 문체를 따르는 ‘옴과 같은’(hiobartig)이라는 말로 묘사할 수 있는 문학작품들(예컨대, Kleist, Hölderlin, Nietzsche, Kafka, Celan의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였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부록으로 문학,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 나타난 옴기 수용사에 대한 목록을 제공하고 있어 독자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10. 국내학자들의 연구서와 논문들

최근에는 국내학자들에 의해서 집필된 옴기 연구서들이 여러 권 출판되었다. 먼저 국내학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출판된 학문적 성격을 띤 성

서주석이 이군호에 의해서 출판되었다.⁵⁴⁾ 다음으로 민영진의 욕기 연구서가 있는데,⁵⁵⁾ 이 책은 설교자들이 욕기를 본문으로 하여 설교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욕기 이해를 위한 여러 자료들과 본문 주석의 예들을 보여준다. 세 번째의 욕기 연구서는 하경택의 저서이다.⁵⁶⁾ 이 책에서 저자는 욕기 안에 나타난 질문과 응답의 구조에 주목하며, 욕의 탄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발언을 통해 욕기의 신학을 이해하고자 한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욕기 연구서는 안근조의 저서인데, 전자는 저자가 욕기의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특이성을 강조하며 욕기를 지혜코드로 읽을 것을 제안하고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⁵⁷⁾ 후자는 저자가 지혜적인 관점에서 욕기의 주요 부분들을 해설한 욕기 해설서이다.⁵⁸⁾ 여섯 번째 책은 배정훈의 지혜문학 연구서이다.⁵⁹⁾ 욕기뿐만 아니라 잠언과 전도서를 다루고 있지만, 욕기를 포함한 구약성서 지혜문학의 특징을 한 눈에 볼 있게 하는 책이다. 일곱 번째로 HOW 주석 시리즈로 출판된 욕기 주석이 있다. 이 책은 앞의 욕기 연구서를 펴낸 배정훈, 안근조, 하경택 세 명의 저자에 의해서 집필되었다. 본문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본문이 주는 교훈까지 담고 있어, 특히 욕기 본문으로 설교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에 도움이 되는 책이다. 이 외에 이윤정의 박사학위 논문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윤정은 욕기를 ‘하나님의 임재’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욕기의 탄식, 정의, 지혜의 모티프들은 ‘하나님의 포괄적 임재’라는 주제 아래 통합되고 응답된다고 말한다.⁶⁰⁾

54) 이군호, 『욕기』(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55) 민영진, 『설교자와 함께 읽는 욕기』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2).

56) 하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욕기연구. 지혜, 탄식, 논쟁 안에 있는 ‘신학’과 ‘인간학’』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6).

57) 안근조, 『(지혜말씀으로 읽는) 욕기』 (서울: 한들, 2007).

58) 안근조, 『하나님의 지혜초청과 욕의 깨달음』 (서울: 킹덤북스, 2012).

59) 배정훈, 『하늘에서 오는 지혜: 잠언, 전도서, 욕기에 대한 정경적 이해』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3).

60) 이윤정, 『욕기의 탄식·정의·지혜와 하나님의 포괄적 임재』, 총신대학교 미간행박사학위논문 (2014).

이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먼저, 이윤정은 설교자를 위한 주석서와 욕기 관련서적을 소개하여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었고,⁶¹⁾ 이상혁은 70인경 욕기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으며,⁶²⁾ 안근조와 조한근은 욕기의 본문들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였다.⁶³⁾ 이환진과 안근조는 욕기의 번역 문제를 다루는 논문을 발표했고,⁶⁴⁾ 함택과 김상기는 본문에 대한 주석적 연구를 시도하였다.⁶⁵⁾ 또한 이영미와 하경택은 욕기 안에서 고찰되는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시도하였다.⁶⁶⁾

11. 나가는 말

우리는 위와 같은 고찰을 통해 욕기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영역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언어문학적 연구는 욕기의 수사적 기능과 문학적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드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편집비평적 연구가 주를 이룬 역사-비평적 접근은 욕기의 형성사와 더불어 욕기의 기능과 신학적 의도를 파악하는데 다양한 이해를 제공하며 욕기를 다양한 시대와 대화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욕기의 '대화적' 성격을 강

-
- 61) 이윤정, “설교자를 위한 욕기 주석과 강해 및 관련 서적 소개,” 『헤르메네이아투데이』 53 (한국신학정보연구원, 2012), 181-198.
 62) 이상혁, “칠십인역의 번역 기술과 히브리어 동사 형태-욕기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0 (2007), 311-328.
 63) 안근조, “욕기 31장에 나타난 구약성서의 윤리,” 『구약논단』 36 (한국구약학회, 2010), 71-91; 조한근, “욕기 29장에 나타난 신명기 신학적 윤리규범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49 (한국구약학회, 2013), 262-292.
 64) 이환진, “『성경전서』의 번역 대본 고찰 - 시편과 잠언과 욕기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27 (대한성서공회, 2010), 31-55; 안근조, “욕기 42:6 번역의 문제와 제안,” 『성경원문연구』 31호 별책 (대한성서공회, 2012), 48-56.
 65) 함택, “욕기 28장의 구조와 기능,” 『장신논단』 35 (장로교신학대학, 2009), 43-73; 김상기, “욕기 42:1-7: 이유 없는 고난,” 『성경원문연구』 26 (대한성서공회, 2010), 32-52.
 66) 이영미, “역사청산- 왜, 무엇을, 어떻게? : 민중신학적 구약신학을 위한 서론적 탐구- 욕기의 하나님 이해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131 (한국신학연구소, 2005), 29-56; 하경택, “욕기에 나타난 소통 신학,” 『Canon&Culture』 14 (한국신학정보연구원, 2013), 5-42.

조하는 입장들은 읍기 안에 다양한 전통과 목소리가 논쟁하고 대화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발언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읍기의 다성적 측면만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과정으로서의 읍기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다양한 연구방법들이나 다양한 주제별 접근은 읍기가 얼마나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읍기의 메시지가 고찰될 수 있으며 읍기가 얼마나 이 시대에 유용한 책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한다. 최근에 출간된 읍기 주석서들이나 학회 논문집들은 읍기 연구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만큼 읍기 연구 과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을 반증한다. 읍기 수용사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읍 인물과 읍기의 주제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세기 현대사에 나타난 홀로코스트 경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국내학자들의 연구들은 이제 읍기해석도 더이상 외국학자들의 해석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내학자들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와 같은 연구사를 종합하면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읍기 연구사에 나타난 특징을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읍기 연구에서 역사-비평학적인 연구는 특별히 편집사와 관련하여 여전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둘째로, 다양한 연구 주제 가운데 읍의 ‘인물상’에 대한 연구가 두드러진다. 셋째로, 읍기의 ‘대화적 성격’을 주목하고 그것을 해석학적 열쇠로 보는 입장들이 많다. 넷째로, 읍기의 수용사에 중점을 둔 연구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별히 21세기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읍기가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탄식하며 질문하였던 읍과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읍기는 읍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통찰을 얻게 한다. 아쉬운 점은 해외학

자들의 연구에 비하면 아직도 국내학자들의 욱기 연구는 아직 미약한 형편이다. 국내에도 욱기 전공자들이 여럿 배출되어 있는 만큼, 국내 학자들에 의해서 저술된 깊이 있는 욱기 연구논문과 책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12. 참고문헌

- 김상기. “욕기 42:1-7: 이유 없는 고난.” 『성경원문연구』 26 (2010), 32-52.
- 민영진. 『설교자와 함께 읽는 욱기』.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2.
- 배정훈. 『하늘에서 오는 지혜: 잠언, 전도서, 욱기에 대한 정경적 이해』.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
- 안근조. “욕기 31장에 나타난 구약성서의 윤리.” 『구약논단』 36집 (2010), 71-91.
- _____. “욕기 42:6 번역의 문제와 제안.” 『성경원문연구』 31호 별책 (2012), 48-56.
- _____. 『지혜말씀으로 읽는 욱기』. 서울: 한들, 2007.
- _____. 『하나님의 지혜초청과 욱의 깨달음』. 서울: 킹덤북스, 2012.
- 우상혁. “칠십인역의 번역 기술과 히브리어 동사 형태-욕기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0 (2007), 311-32.
- 이군호.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욕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이영미. “역사청산- 왜, 무엇을, 어떻게? : 민중신학적 구약신학을 위한 서론적 탐구- 욱기의 하나님 이해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131 (2005), 29-56.
- 이운정. “설교자를 위한 욱기 주석과 강해 및 관련 서적 소개.”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53 (한국신학 정보연구원, 2012), 181-198.

- _____. 『욥기의 탄식·정의·지혜와 하나님의 포월적 임재』. 총신대학교, 미간행박사학위논문, 2014.
- 이환진. “『성경전서』의 번역 대본 고찰 - 시편과 잠언과 욥기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27 (2010), 31-55.
- 조한근. “욥기 29장에 나타난 신명기 신학적 윤리규범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49집 (2013), 262-292.
- 하경택. “욥기에 나타난 소통 신학.” 『Canon&Culture』 14 (2013), 5-42.
- _____.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연구. 지혜, 탄식, 논쟁 안에 있는 ‘신학’과 ‘인간학’』.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6.
- 함택. “욥기 28장의 구조와 기능.” 『장신논단』 35 (2009), 43-73.
- Alderman, B. J. “A Note on Peshitta Job 28:33.” *JBL* 129/3 (2010), 449-456.
- Astell, A. *Job, Boethius, and Epic Truth*, Ithaca, NY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 Balentine, S. E. *Job*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Smyth & Helwys, 2006.
- Basset, L. *Holy Anger: Jacob, Job, Jesus*. Grand Rapids: Eerdmans, 2007.
- Bochet, M. *Job après Job: destinée littéraire d'une figure biblique*. Bruxelles: Lessius, 2000.
- Burrell, D. B. /Johns, A. H. *Deconstructing Theodicy: Why Job Has Nothing to Say to the Puzzled Suffering*.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2008.
- Clines, D. J. A. *Job 1-20* (WBC 17), *Job 21-37* (WBC 18a), *Job 38-42* (WBC 18b). Dallas, TX: Word Books, 1989/ Nashville: Nelson, 2006/2010.
- Dailey, Th. F. “The Wisdom of Irreverence. Job as an Icon for Postmodern Spirituality.” *Interpretation* 53/3 (1999), 276-289.

- Eisen, Robert. *The Book of Job in Medieval Jewish Philosophy*.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Fokkelman, J. P. *Major Poems of the Hebrew Bible: At the Interface of Prosody and Structural Analysis. Vol. 2: 85 Psalms and Job 4-14* (Studia Semitica Neerlandica 41)/ *Vol. 4: Job 15-42* (Studia Semitica Neerlandica 47). Assen: Van Gorcum, 2000/2004.
- _____. *The Book of Job in Form. A Literary Translation with Commentary* (Studia Semitica Neerlandica Bd. 58). Leiden/Boston, MA: Brill, 2012.
- Greenstein, E. L. "The Language of Job and its poetic Function." *JBL* 122/4 (2003), 651-666.
- Ha, Kyung-Taek. *Frage und Antwort. Studien zu Hiob 3 im Kontext des Hiobbuches* (HBS 46). Freiburg u. a.: Herder Verlag, 2005.
- Haar, M. J. "Job After Auschwitz." *Interpretation* 53/3 (1999), 265-275.
- Hamilton, M. "Elite Lives: Job 29-31 and Traditional Authority." *JSOT* 32/1 (2007), 69-89.
- Haughn, C. / Gonsiorek, J. C. "The Book of Job: Implications for construct validity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diagnostic criteria."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12/8 (2009), 833-845.
- Heckl, R. *Hiob – vom Gottesfürchtigen zum Repräsentanten Israels. Studien zur Buchwerdung des Hiobbuches und zu seinen Quellen* (FAT 70). Tübingen: Mohr Siebeck, 2010.
- Kaiser, Otto. *Das Buch Hiob. Übersetzt und eingeleitet*. Stuttgart: Radius, 2006.
- Krüger, Th. u. a. (Hrsg.). *Das Buch Hiob und seine Interpretationen. Beiträge zum Hiob-Symposium auf dem Monte Verità vom 14.-19. August 2005*.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2007.
- Lux, R. *Hiob. Im Räderwerk des Bösen* (Biblische Gestalten, Bd. 25).

- Leipzig: Evang. Verl.-Anstalt, 2012.
- Magdalene, F. R. "Job's Wife as Hero: a feminist-forensic Reading of the Book of Job." *Biblical Interpretation* 14/3 (2006), 209-258.
- _____. *On the Scales of Righteousness: Neo-Babylonian Trial Law and the Book of Job* (Brown Judaic Studies 348). Providence, RI: Brown Judaic Studies, 2007.
- Newsom, C. A. "Considering Job." *CRBS* (1993), 87-118.
- _____. "Re-considering Job." *CBR* (2007), 155-182.
- _____. "The Book of Job as Polyphonic Text." *JSOT* 97 (2002), 87-108.
- _____. *The Book of Job: A Context of Moral Imagin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Oberhänsli-Widmer, G. *Hiob in jüdischer Antike und Moderne. Die Wirkungsgeschichte Hiobs in der jüdischen Literature*.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8.
- Perraymond, M. *La figura di Giobbe nella cultura paleocristiana traesegesi patristica e manifestazioni iconografiche*. Città del Vaticano: Pontificio Istituto di Archeologia Christianna, 2002.
- Pilger, T. *Erziehung im Leiden* (FAT 2, Reihe 49). Tübingen: Mohr Siebeck, 2010.
- Riede, P. "Ein Spinnenhaus ist sein Vertrauen' (Hi 8,14): Tiere in der Bildsprache der Hiobdialoge." In: 동저자, *Im Spiegel der Tiere* (Fribourg: Editions Universitaires, 2002), 133-152.
- _____. "Ich bin ein Bruder der Schakale' (Hi 30, 29): Tiere als Exponenten der gegenmenschlichen Welt in der Bildsprache der Hiobdialoge." In: Lange, A. u. a. (Hrsg.). *Die Dämonen - Demons* (Tübingen: Mohr Siebeck, 2003), 292-306.

- Rohde, M. *Der Knecht Hiob im Gespräch mit Mose. Eine traditions- und redaktionsgeschichtliche Studie zum Hiobbuch*.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7.
- Schifferdecker, K. *Out of the Whirlwind: Creation Theology in the Book of Job* (Harvard Theological Studies 61).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 Schmid, K. "Der Hiobprolog und das Hiobproblem." In: Oeming, M. and Schmid, K. (Hrsg.), *Hiobs Weg*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1), 9-34.
- Schrader, U. *Die Gestalt Hiobs in der deutschen Literatur seit der frühen Aufklärung* (Europäische Hochschulschriften). Frankfurt a. M. u. a.: Peter Lang, 1992.
- Schreiner, S. *Where Shall Wisdom be Found? Calvin's Exegesis of Job from Medieval and Modern Perspectiv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Seidl, Th. und Ernst, S. (Hrsg.). *Das Buch Ijob: Gesamtdeutungen-Einzeltexte-Zentrale Themen* (Österreichische Biblische Studien, Bd. 31). Frankfurt am Main u. a.: Peter Lang, 2007.
- Seow, C. L. *Job 1- 21. Interpretation and Commentary* (Illuminations). Grand Rapids, MI / 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2013.
- Shepherd, D. "'Strike his bone and his flesh': Reading Job from the Beginning." *JSOT* 33/1 (2008), 81-97.
- Spieker, H. (Hrsg.). *Hiob – Auseinandersetzungen mit einer biblischen Gestalt*.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08.
- Stordalen, T. "Dialogue and Dialogism in the Book of Job." *JSOT* 20 (2006), 17-35.

- Strauß, H. *Hiob. Teil 2. Hiob 19,1-42,17* (BK 16/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0.
- Syring, Wolf-Dieter. *Hiob und Seine Anwalt. Die Prosatexte des Hiobbuches und ihre Rolle in seiner Redaktions- und Rezeptionsgeschichte* (BZAW 336). Berlin /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4.
- Szpek, H. M. *Translation Technique in the Peshitta to Job: A Mode for Evaluating a Text with Documentation from the Peshitta to Job* (SBLDS 137). Atlanta: Scholars, 1992.
- Terrien, S. *The Iconography of Job through the Centuries: Artists as Biblical Interpreters,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6.
- Verbin, N. *Divinely Abused: A Philosophical Perspective on Job and His Kin*. New York: Continuum, 2010.
- Vicchio, S. /Edinberg, L. *The Sweet Uses of Adversity: Images of the Biblical Job*. Annapolis, MD: St Johns College, 2002.
- Wanke, R. M. *Praesentia Dei: Die Vorstellungen von der Gegenwart Gottes im Hiobbuch* (BZAW 421). Berlin / Boston, de Gruyter, 2013.
- Waters, L. J. "Elihu's Categories of Suffering from Job 32-37." *Bibliotheca Sacra* 166 (Oct.-Dec. 2009), 405-420.
- _____. "Missio Dei in the Book of Job," *Bibliotheca Sacra* 166 (Jan.-Mar. 2009), 19-35.
- Wilson, Gerald, H. *Job* (NIBCOT 10). Peabody: Hendrickson, 2007.
- Witte, M. (Hrsg.). *Hiobs Gestalten. Interdisziplinäre Studien zum Bild Hiobs in Judentum und Christentum*. Leipzig: Evang. Verl.-Anstalt, 2012.
- Young, I. "Is the Prose Tale of Job in Late Biblical Hebrew." *VT* 59 (2009), 606-629.

검색어

욥기 연구사

편집사

욥의 인물상

대화적 성격

수용사

A history of researches on the Book of Job since 2000's

Ha, Kyung-Taek Dr. 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paper attempts to survey a number of current studies on the Book of Job since 2000's and to provide an overall perspective of them. The studies of the Book of Job were conducted very actively in various dimensions than those of any other books of the Old Testament. They encompass a wide range of approaches such as linguistic-literary studies, historical-critical approach, feminist theology, structuralism, and pathological-psychological analysis. Recently many outstanding commentaries were published. The collections of essays by Job's research colloquia, the studies on Job's reception history, and Korean scholars' writings enrich the studies on the Book of Job.

The features presented in this survey of the studies on the Book of Job

www.kci.go.k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historical-critical approach is still tried mainly for the studies on the redaction history of the Book of Job. Second, the figure of Job is in the limelight among the various research topics. Third, many scholars pay attention to the “dialogic feature” of the Book of Job and regard it as a hermeneutical key to the study on the Book of Job. Fourth, studies focused on the reception history of the Book of Job are being actively performed from the various perspectives.

Keywords

history of researches on the Book of Job

redaction history,

Job's figure

dialogic feature

reception history

- 투고일: 2015년 10월 01일
- 심사일: 2015년 10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11월 06일